

법무매거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검사 SNS 활동 관련 ‘정치적 중립 매우 중요’



법조인 동정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에 대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16일 밝혔다. “검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정치적인 글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답을 통해서다.

현직 검사 중 SNS에 공무상 기밀을 게재하거나 정치적인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검사로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과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거론된다. 이들

은 모두 친정권 성향의 검사로 평가받는다.

임 연구관은 지난 3월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배당 문제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4·7 재·보궐선거 전날인 지난달 6일 “깨시민”을 제외하면 모두 야당 측 선거운동원이며 매국노”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본인이 소속된 검찰청의 수사 대상이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다. 깨시민은 ‘깨어있는 시민’의 줄임말로 여권 지지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진 검사는 SNS에서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의 SNS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된 SNS 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검사의 SNS 활동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평가하긴 어렵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